

“ 유일한 수습책 ”

■ 이종윤 원로목사

애꿎은 보따리만 바다에 던진다고 풍량이 잔잔해 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숨기려는 요나의 낚은 수법에 불과하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과는 무관한 듯 일부러 잠든 채 하거나 태연한 채 하는 위선자의 하품은 가증한 것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잔꾀도 버려야 한다. 제비를 뽑아보면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변명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철면피라는 것을 드러낼 뿐 아무 유익도 못된다. 사태수습을 위한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들어 용상에 던지라’ 며 버틴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전혀 책임의식도 미안함도 느낄 줄 모른다. 그렇다고 ‘너를 들어 바다에’ 라고 성급하게 율화 통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 한 사람에게만 돌을 들어 칠만큼 우리 모두가 의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망하고 말았다. 총회장이 되고 대표회장이 되면 당장 교회를 고쳐 놓겠다는 명의 같은 이들이 이 나라에 몇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키재기나 해서 한국교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을 물고 찢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서야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남의 허물을 캐내어 악한 자로 만들고 거기에 오몰이라도 뿌려 악취가 난다고 비난하여 매장시킨 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누가 그를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할 지 의문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누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중세기 종교개혁운동의 횃불을 다시 올려야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도 큰일인데 신학자의 수가 세계 2위로 많다는 것 또한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자랑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맛 잃은 소금처럼 사회적 비난과 버림을 받고 있는 일에 신학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8월 27일 국내 7개 신학회 회원 2천여 명이 모여 조직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가 향후 6년간의 사업을 출범시키는 발대식을 가졌다. 그들의 헌신을 위한 언약문은 한국교회의 오늘의 문제 수습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첫째 :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둘째 :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그릇터기가 되어 구약의 예언자직과 신약의 사도 직분을 바르게 실현하므로 성경적 교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제2차 종교개혁운동의 횃불을 올린다.

셋째 :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투철한 연합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과 세계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들의 언약이 지켜질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소생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토록 쓰임 받을 터이니 유일한 수습책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성과 열을 다해 서약한 이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시행토록 하자.

—한국장로신문 [1290호] 2011년 9월 10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Aesoon Jang
Hymn	38..... Congregation
*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9:1-12 Pastor
Sermon	"Jesus Heals a Born Blind" Pastor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 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눅(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라베 벤 비에 마음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래시 수바쓰 이정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관쯔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 출 20:12, 눅 15:11-23, 골:3-18-24

십계명 중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 제5계명의 교훈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3:20) 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 외에도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첫 번째로 가정제도를 주셨고, 두 번째로 국가제도,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제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 우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문화명령을 수행케 하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골 3:20의 ‘네 부모’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일부러치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땅의 것을 다스리라” (창 1:28)고 하십니다. 이는 자연을 승배의 대상이 아닌 다스리는 대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화명령은 복음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리신 대명령 입니다

2. 부모에 대한 순종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2-3)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3.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울트라

이 세상에는 양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함은 그것이 인간된 도리이며 올바른 삶 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양심의 법과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부모를 높여드리라는 의미이고, 부모를 경외하라 심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엡 6:1-3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상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지로 함은 굴종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섬김에는 순수한 마음과 자발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4. 감사하라

모성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든 어머니의 이야 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등 모성의 감화 없이 성장한 인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같은 모성이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부패할 수 없고 그 사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성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눅 15장을 보면 굵고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탕지의 비유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탕지의 아버 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끝없이 용서하는 마음입니 다.

맺는 말

복 받은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셨는가? 2)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이 내 가정에서 회복되고 있는가? 3) 우리들의 성경적인 삶이 타인의 가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었는가? 5)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6)우리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으로 자녀 교육이 바를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가?

모든 일에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랑감이 되며 후손들의 분이 되는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11시20분	서준권 목사	김금준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최치순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잠 2:6-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시 10)...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6(3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손인웅 목사
* 찬 송 Hymn	299(41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요일 5:4 인 도 자
찬 송	20(41) 다 함 께
기 도	장창수 집사
성 경	계 2: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에베소교회 “ 설 교 자
* 찬 송	314(51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신동기 권사
성 경	삼상 16:14-2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안박수강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20)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운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 2017홍해작전 실행 참모회의 / 21일(주) 오후3시30분 202호
- 제1권사회 5월 월례회 및 기도회 / 23일(화) 오전9시30분 교회출발(아카데미타운)
- 제2권사회 야외예배 / 23일(화) 오전9시30분 교회출발(광림수도원)

◆ 알 림

-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하여영인(성형외과), 김관섭(영상의학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손인웅 목사 소개** / 경북대 사범대 국어과(B.A) 장신대 신대원(M.Div.)
맥코믹 신대원(D.Min.) 실천신학대학원 명예실천신학박사(Th.D. H.)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 덕수교회 원로목사
(재)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재) 한국기독교학술원 정회원

◆ 결 혼

- 김수진 군(디아스포라부 감수명 성도, 故 우영실 성도의 차남)과 유수정 양(디아스포라부 유일근 성도, 장옥희 성도의 장녀) / 27일(토) 오후5시 스칼라티움 2층 오펜홀(538-3300) / 2호선 강남역1번 출구

◆ 장 례

- 故 김종덕 성도(16교구 김미선 권사 부친, 박흥렬 집사 장인) / 5월15일(월) 별세, 17일(수)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1명	297명	291명	1,469명	14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1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14일	헌금 입금	28,824,700	
"	특별예배비		33,100
"	교회학교운영비		361,500
"	구제비		400,000
"	출 판 비		270,000
"	소모품비,사무용품비		290,780
"	교통통신비		541,450
"	차량유지비		67,000
"	복리후생비		81,500
"	환경유지비		226,000
"	수선유지비		559,000
"	식당운영비		509,000
	합 계	28,824,700	3,339,330

🌳 짓지 못하는 개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을 보게되면 쫓던 개가 갑자기 쫓지 않게 된 것을 보고 새벽마다 고고한 소리로 울던 닭이 달님에게 고발을 하였다. 이는 직무유기 죄요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비리라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짓지 못하는 개가 요즈음 닭도 새벽에 울지 않고 있다고 맞고소를 하였다는 우화가 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한 변명은 더욱 우리를 웃긴다. 닭이 새벽에 우는 이유는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지만 요즘엔 방마다 시계가 있고 자명종이 있으니 구태여 자기가 울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의 대답은 더욱 걸작이다. 본래 개는 도적이 침입할 때 짖는 법인데 요즘엔 자기집 주인이 큰 도적놈이 되었으니 어떻게 누구를 보고 짖으라는 말이라는 항변이다.

짓지 못하는 개, 울지 못하는 닭, 그들의 사정도 딱하지만 그들은 애완용으로만 두고 볼 수도 없지 않은가?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